

지역먹거리지수 전국 '우수'

익산시, 전국 159개 지자체 참여 기관 표창 수상... 로컬푸드 메카 우뚝

익산시가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하며 '로컬푸드'의 메카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수산물)가 함께 실시한 '2022년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전국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활동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첫해인 2020년 D등급에서 시작해 2년 만에 3단계 상승한 'A' 등급으로 전국 159개 평가대상 지자체 중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지역 먹거리지수 평가에서 익산시는 △먹거리 계획 공적추진체계

건립 등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집중해왔다.

특히 로컬푸드직매장의 활성화와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으로 농가와 소비자 간의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에 앞장섰다.

그 결과 로컬푸드 직매장은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다. 시는 2016년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인 어양점과 지난해 2호점인 모현점을 개장하여 누적 매출액 640억원을 돌파했다. 출하 농가수는 1,082농가, 회원 수는 1만8,000명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매년 수도권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을 납품해왔으며 내년도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학교급식 공급에 선정돼 연간 350여 톤을 서울시 소재 학교에 공급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지역먹거리 지수 우수 지자체 최우수상 수상

농식품부 주관 평가서 선정

군산시가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 지역먹거리지수 지수측정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는 지역먹거리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산을 촉진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지난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측정대상은 전국 157개 시·군이며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분야 학교급식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검

증을 통해 2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올해는 기존 로컬푸드 지수에서 지역먹거리 지수로 개편하여 먹거리복지, 기후·환경분야로 측정범위 확대해 13개 과제 17개 측정지표로 진행했다.

군산시는 민관협의체인 군산 먹거리 위원회를 통해 시·교육청·소비자·생산자·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분과별 위원회 개최와 먹거리 전략 및 목표 수립에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먹거리위원회 운영실적과

지역먹거리 전략목표를 충실히 사업에 반영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농식품부 최우수 장관상을 받았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로컬푸드 활성화에 발맞춰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푸드플랜 계획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축수산인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을 위한 유통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기자

익산시, '관내업체 계약, 신속지급' 지역경제살리기 총력

익산시가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처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 입찰공고 방식과 선금·선고지 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자금 흐름속도를 촉진하기 위해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 기간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고 선지급을 높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나가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모든 입찰공고에 공고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해 계약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선금·선고지 금액을 신속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선금 집행 활성화와 한시적 선금 집행 특례를 활용해 선금지급률을 80%까지 높여 지급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 3자다가 계약에 대해서는 선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조기에 계약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가 11월 현재까지 체결한 계약은 총 3,265건, 1,367억6,4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871억9,600만원을 집행했으며 이는 총 계약금액 대비 약 64%에 달한다.

한편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업체계약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관내 생산물품과 업체를 분기별로 조사해 시 산하 전 부서에 지역업체 목록을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수의계약시 부득이하게 관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관외 업체 선정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업발주 전부터 관내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다양한 문화공연 · 체험활동

익산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가족 소풍지로 급부상

익산 왕궁보석테마관광지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특색있는 가족소풍 장소로 급부상했다.

시는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왕궁보석박물관 야외광장에서 매주 토·일요일 및 공휴일마다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는 '가족소풍 축제'를 진행했다.

지난 9일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1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보석박물관, 다이노키즈월드 등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탄탄한 하드웨어 기반에 박물관, 서커스 등을 테마로 한 이색 볼거리와 상설 공연들이 더해져 '콘텐츠관광' 시대를 열었다.

관타지 댄스뮤지컬 박물관이 살아있다, 서커스 광대들이 전하는 3가지



이야기 꿈, 도전 행복' 서커스 퍼포먼스 형태로 펼쳐진 '서커스 위켄드' 등 특별공연과 함께 솜사탕 국악 댄스 버블, 창작택견 공연 등 다양한 종류의 상설 공연이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고도 백제인 익산을 상징하는 공예품 만들기 체험 12종(북북 바랍개비, 가람문화관을 상징하는 시인의 펜, 미륵사지와 왕궁리 석탑, 미륵이 페이 스페인팅 등)를 진행하여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매화차 매진행렬을 이뤘다. /익산=이재춘 기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 청소년 꿈 응원

익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익산시가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022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20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국가사업을 평가해 익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2020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상공회의소 5층에 장소를 이전,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검정고시 대비반, 컴퓨터실, 활동실, 상담실 등을 마련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의 기회를 갖도록 한국사 자격증반, 자기계발 프로그램과 검정고시 대비반, 멘토링활동 등 교육의 기회를 확대했다.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사업으로 약 98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국가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재능기부등이 엑시움(단장 안성권)과 협력해 검정고시 멘토 사업으로 4년간 314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했다.

지나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자립, 문화생활, 급식 등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조성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성료

군산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 주간에 맞아 24일 은파팍비스 아트페스티벌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했다. 기념식은 기관소개 동영상 시청, 기념식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의 5분 발언과 아동학대 예방 퍼포먼스의 순으로 진행됐다.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의 5분 발언은 '아이들이 바라는 군산'이라는 주제로 아동의 눈에서 바라보고 직접 체험 및 수집한 활동 내용을 토대로 정책을 제

언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또한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아동학대 예방 퍼포먼스는 아동, 어른들이 함께 그림판을 맞춰 아동의 웃는 얼굴을 완성 시키는 퍼포먼스로 아동이 밝게 웃을 수 있는 행복한 군산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내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24일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12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18세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으로서 특수교육연계형 일자리는 2023년 기준 전공과 학생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이라는 자격이 추가된다.

접수방법은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 인원은 일반형일자리 8명(전일제 57명, 시간제 24명), 복지형 일자리 120명(참여형 110명, 특수교육-복지연계형 10명), 특화형 일자리 15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0명,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5명)으로 총 216명이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군산=김판근기자

군산시, 내년 시민 평생 학습 요구조사 실시

군산시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3년 군산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요구조사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2023년 평생학습관, 월명평생학습센터, 행복학습센터, 동네문화카페 등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다.

설문내용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 선호도,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희망 프로그램 및 건의사항 등을 조사해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참여방법은 스마트폰 QR코드 접속 방법과 홈페이지 시평생학습정보망 또는 평생학습관이 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군산=김판근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